

북한 영한 기계번역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병희*, 전성진*, 서정현*, 류범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시스템연구실

e-mail : {bhlee, sjjhun, jerry, ybj}@kisti.re.kr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in a North Korean E-K Machine Translation System

Byeong-Hee Lee*, Sung-Jin Jhun*, Jeong-Hyeon Seo*, Beom-Jong You*

*Dept. of Information Systems, KISTI

요약

KISTI는 최신 해외 과학기술 정보를 우리 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영문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중국 단동에 소재한 하나프로그램 센터와 남북한 과학기술 정보교류 차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하나프로그램 센터에서 개발한 영한 번역 시스템을 가지고 각종 문서의 제목을 번역하였을 때 발생하는 번역 오류를 분석하고, 알타비스타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의 번역 결과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영한번역 시스템이 실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문법 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서론

정보화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번역하려는 노력이 1950년대부터 여러 국가에서 시도되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해외 각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한 자료를 DB화하여 국내외의 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영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과학기술 자료를 정보 이용자들이 최신 해외 과학기술 정보를 우리 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KISTI는 온라인 상에서 영문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중국 단동에 소재한 하나프로그램 센터와 남북한 과학기술 정보교류 차원에서 개발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영한 번역 시스템에는 앙코르, 트래니, 번역마당, 클릭큐, 이지맨, 인가이드, 스마트랜, 알타비스타 번역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제품보다 나은 고품질의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번역 분야를 제한하든가, 입력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음성 인식 및 문자 인식

기술을 접목하는 제품들이 개발되어 시판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문서들이 여러 번역 소프트웨어 회사나 연구 기관 내에서 내부 자료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각각의 번역 시스템들이 시스템마다 고유한 특성(system dependent)들을 가지고 있어 여러 번역 시스템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하나프로그램 센터에서 개발한 영한 번역 시스템을 가지고 각종 문서의 제목을 번역하였을 때 발생하는 번역 오류를 분석하고, 여러 번역 시스템 중에서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알타비스타 번역 서비스(<http://babel.altavista.com/tr?>)를 이용하였을 때의 번역 결과와 비교하고 분석한다.

2.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

과학기술 문헌의 영한 번역에 있어서 남북한의 사용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 남북한 언어 사용의 차이이다.

최현규[2]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맞춤법의 차이

